

孟氏杏檀 대청 前面窓戶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ront Windows Frame of Maeng's House

곽 동 엽*
Kwak, Dong-Yeob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windows frame built in the end of Koryu dynasty to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windows frame is found both in temples and in Maeng's house. It is thus proved that the frame was a general one prevailed in that time without regard to function and region. And it proves to be the original form of windows frame of temples and houses in the middle or the end of Chosun dynasty.

I. 서 론

창호는 건축물 외부의 특성을 결정하는 의장적 요소일 뿐만이 아니라 환경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 구성요소중 빼놓을 수 없는 因子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들어 창호에 대한 연구는 형태 및 특성 그 자체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시각을 벗어나, 오랜 기간을 거치는 동안 창호가 변화되어온 樣相을 연구하고 탐색하여 그 변천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통건축에 있어서 건립년대 추정 的 근거가 되는 編年指標로 활용할 길을 모색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대부분 현장유구의 철저한 조사에서 시작하여 건립당시의 형태를 찾아 복원하고, 이들을 체계화하여 樣式의 변천과정을 탐색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기에 普遍化되고 있던 하나의 양식을 체계화 시키는 작업은 변천과정 탐색에 필히 선행 되어야 할 연구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립시기를 高麗末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충남 아산의 맹씨행단 대청의 전면 창호를 유사형태의 창호와 비교분석하여, 이러한 형태의 창호가 麗末鮮初에 유행하던 한 형식이었음을 밝히고, 하나의 樣式으로 體系化함으로써 창호를 통한 編年指標 작성에 자료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맹씨행단에서 보이는 이러한 창호의

「이 논문은 1995학년도 대전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1) 이러한 연구는 金一鎭의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와 鄭明燮의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건축의 廳房間 開口部형식 變遷에 관한 研究' 등이 대표적이다.

형태는 불행히도 주거건축에서는 유일한 예이어서 비교고찰의 대상이 없으나, 寺刹建築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창호를 찾아 볼 수 있어 이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고찰의 대상이 주거건축과 機能上 전혀 다른 사찰이고, 이러한 사찰마저도 분포지역이 제각각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호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은 기능적 지역적 차이를 떠나서 그 시기에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하나의 樣式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창호를 보는 연구의 視覺은 그들의 개별형태나 크기등을 분석하는 微視的인 眼目を 지양하고 창호의 전체적인 구성형식 즉 연구대상건물의 대청 전면 柱間에 설치 되어있는 창과 문의 조합방법, 또는 조합의 형태등을 주로 考察의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는 巨視的인 視覺으로 연구에 접근 하였다.

II. 맹씨행단의 概要 및 대청전면 창호형식

1. 맹씨행단의 概要

맹씨행단은 충남 아산군 배방면 종리에 위치한 살림집으로 高麗末에 建立되어 수차례의 改築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조선 世宗朝때 清白吏로 유명한 재상 古弗 孟思誠(1360-1438)이 살았고 살림집으로서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 주택은 수 차례의 개축을 거치면서도 麗末鮮初의 架構手法이 비교적 건설하게 남아있어 建築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적 제 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택의 평면은 가운데 正面 2間, 側面 2間 4通間의 대청을 두고 正面 1間, 側面 3間の 온돌방이 대청의 양쪽에 붙어 전체적으로는 正面 4間, 側面 3間の 工字形지붕으로 구성되었고, 대청의 앞쪽에는 半間의 뒷마루를 두어 출입에 편리를

도모 하였다. 양쪽의 온돌방은 앞쪽으로 2通間의 방과 뒷쪽에 1間的 방으로 구획하여 외여닫이 문으로 연결 하였다.

대청상부 가구구조를 보면 전면 뒷마루와 대청 사이에는 高柱를 두고 대청의 배면에는 桴柱를 둔 관계로 대들보가 배면 기둥에는 柱上에 얹히는 반면 前面에는 주두의 밑에서 바깥쪽의 퇴보와 합보되는 형식을 취한 1高柱 5梁架로 하였다. 따라서 종보는 배면쪽에서 대들보위에 동자주를 세워 바치고, 전면에서는 고주의 주두위에 앉혔다. 또한 종보위에는 古式의 동자주대공³⁾을 두어 소슬합장으로 보강하여 종도리를 바치고 있고 기둥 상부와 대량위 동자주에 걸구된 초익공의 쇠서는 외부로 강직하게 뻗어 구조적인 장식미와 堅實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의 結구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개축을 거치면서도 麗末鮮初의 구조방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건물로 보여진다.

2. 맹씨행단의 대청전면 창호형식

맹씨행단 대청전면 창호는 前面 左右側 2間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配設되어 있다. 左柱間 창호는 좌우기둥에 문설주를 붙여 세우고 상부에서는 상인방 밑에 같은 크기의 문인방과 結구되도록 하여 문열굴을 구성하였다. 창호는 간살을 3등분하고 가운데설주⁴⁾를 세워서 문과 창으로 구분하였고, 창호의 상부에는 머름을 들였는데 머름의 폭은 각각 창과 문의 크기와 동일하게 잡고 머름동자를 세워 公판을 기웠다. 창과 문을 구분한 가운데 설주와 머름동자도 문열굴을 구성한 部材와

3) 이러한 형태의 대공은 고려시대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과 朝鮮初 건물인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에서 볼 수 있다.

4) 여기에서 언급되는 가운데설주란 용어는 金一鎭의 "한국건축의 營繕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창호형식은 김일진의 위 연구에서 언급된 營繕창과는 그 형식이 다르다. 즉 本稿에서 대상이 되는 창호는 가운데설주를 사이에 두고 문과 獨窓이 獨窓이 조합되어 있거나, 獨窓이 二連 또는 三連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다.

2) 김봉렬, 한국의 건축, 공간사, 1994. P 103

같은 크기를 사용 하였다. 가운데 설주로 3등분 된 간살중 가운데에는 문을 끼웠는데 문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1870 mm이고 폭이 825 mm로 좌우측의 창보다 폭과 높이가 비교적 큰 외여단이 굽넬 井字살문이다. 이문은 하부에 머뭇을 들이지 않고 문하인방위에 바로 설치되어 있어서 문턱이 낮게 구성되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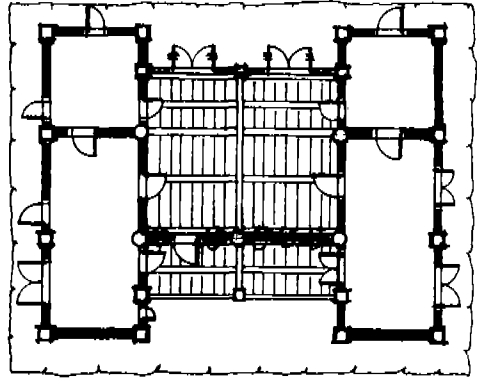
한편 문의 양측에 붙어있는 獨窓은 좌우의 형태가 같은 同形으로 하인방위에 다시 가지방을 덧대고 창턱을 높여서 左右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가지방의 높이는 문의 굽넬과 높이가 같은 270 mm 높이다. 獨窓의 크기는 높이 1600 mm 폭 530 mm로 문보다 폭도 좁고 높이도 작은 형태를 하고 있고, 형식은 굽넬이 없는 정자살창으로 상부에 돌쩌귀를 달아 위로 들어올려서 들쇠에 달아내는 들어열개 獨窓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맹씨행단 대청전면 2間 중 左側間 창호의 전체형식을 고찰하여 보면 가운데 間에 굽넬을 들인 외여단이 井字살 출입문을 달고 그 양쪽에는 들어열개 창을 시설하였으며 창과 문은 가운데설주로 구분 하였다. 창과 문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창 하인방위에 출입문의 굽넬과 높이가 같은 가지방을 놓고 창을 시설한 관계로 외부에서 보면 창과 문을 단았을때 마치 폭은 다르지만 높이가 같은 井字살 창이 3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것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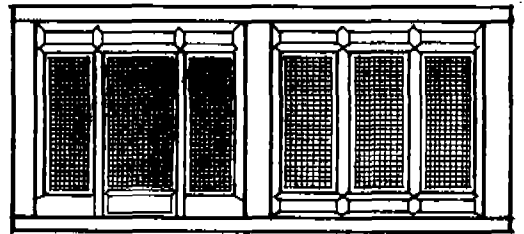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청의 前面에 창호를 설치할때 창이나 문만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벽을 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과 창을 조합하여 全柱間을 구성했다는것과, 창의 개폐방법도 각각을 들어열개 獨窓으로 구성하였다는점이다.

右柱間에 설치되어있는 창호의 모습을 살펴보면 右柱間 全間에 문얼굴을 들여 3등분하고 가운데 설주를 세워 각각 井字살 獨窓을 시설하였는데 左側의 柱間과 다른점은 間을 균등하게 3등분하여 모두 창을 달고, 창의 하부에 좌측주간의 가지방과 동일한 높이의 머뭇을 들여 창턱을 높인 것이다. 이들 3개의 창도 좌측간의 창과 마찬가지로

지로 들어열개 창이다.



(도-1) 맹씨행단 평면도



(도-2) 맹씨행단 대청전면 창호형식

Ⅲ. 유사형태 창호와의 비교분석

1. 부석사 무량수전

1) 개요

부석사는 신라 文武王 16年(676)에 의상국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로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殿이다. 현존하는 이 건물은 1916년에 있었던 해체 수리시 발견된 墨書名⁵⁾으로 1376년에 再建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당의 양식과 대비하여 적어도 1270년경에는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5)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88, 일지사, 재인용 --- 洪武九年(1376)丙辰 圓融國師改造改金 百至于萬曆三十九年辛亥(1611)五月晦日風雨大作析其中樑 明年壬子(1612)改樣新其畫彩---
6) 정인국, 전게서, P 27

무량수전의 구조는 正面 5間 側面 3間の 9梁 架 겹치마 팔각지붕으로 내부에는 高柱가 前後列에 배치되어 내부공간을 外陣과 內陣으로 나누어 형성하고 있고, 主尊佛인 아미타여래불상은 특이하게 정면에 모셔져 있지 않고 西方淨土를 상징하는 서쪽에 앉아 東向으로 모셔져 있다.

산지자락을 평탄하게 다듬어 기단을 만들고 건물을 앉혔는데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갑석등으로 이루어진 架構式기단으로 꾸미고, 배흘림이 강한 굽직한 기둥위에 內外 2出目으로 된 주심포양식 특유의 두공을 올렸다. 外陣柱와 內陣柱는 퇴량으로 결구하고 內陣 高柱위에는 소첨차와 대첨차를 놓아 주심포양식의 전형적인 향아리보를 얻었다. 大梁위에는 포대공을 左右에 놓고 宗梁을 받치게 했고, 宗梁위 중앙에는 古式의 마루대공과 그 좌우에 곡선으로 된 소슬합장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쳤는데 천장이 연등천장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架構部材가 노출되었다.⁷⁾ 건물의 정면 5칸중 御間과 兩夾間은 동일한 길이로하여 양퇴간보다 비교적 길게 간살을 잡았는데 퇴간에는 들어열개창을 시설하였고 어간과 양협간은 문과 창으로 조합 구성하였다. 背面의 창호는 御間에 신방목을 들인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고, 兩夾間에 살광창을 들인 반면 좌우측면에는 창호를 시설치 않았다.

이 무량수전의 건축양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인 주심포양식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주심포양식의 始原的인 건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물로 인정받고 있다.

2) 전면 창호형식

부석사 무량수전의 전면 창호형식은 後代에 변형된 것으로,⁸⁾ 창건당시의 창호형식은 배면에 시설된 창호형식⁹⁾과 동일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호형식과 거의 같은 형태의 창호가 수덕사 대웅전, 관룡사 약사전¹⁰⁾, 낙산사 원통보전¹¹⁾ 등 창건년대가 비교적 오래된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 金一鎭은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몇채 남지않은 고려시대 건축물에 이러한 형태의 창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古格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창문양식으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량수전 전면 창호가 비록 창건당시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麗末鮮初에 유행하던 하나의 창호형식으로서 고려말이나 조선초기에 들어 지금과 같은 창호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량수전의 창호를 麗末鮮初의 古格을 간직하고 있는 창호형식으로 보고 이하 各論에 들고자 한다.

무량수전의 정면은 5間으로 御間과 兩夾間 3間에는 같은 형식의 창과 문이 그리고 양퇴간에는 들어열개 독창이 시설되어 있다. 창과 문이 시설되어 있는 어간과 양협간을 보면 하인방과 상인방 사이에 문열굴을 들이고 杻柱間을 창과 문으로 구성하였다. 창과 문은 가운데 설주를 세워 구분하였는데 가운데에는 쌍여닫이 굽널 井字살문을 달아 출입케 하였고 그 좌우에는 井字살 외여닫이 들어열개 獨窓이 配設되어 평상시에는 닫아두었다가 필요시에 들어열어서 杻柱間을 개방되게 하였다. 문과 창의 上部에는 가운데설주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部材를 사용하여 머름동자를 세우고 머름궁판을 끼웠다. 창의 하부에도 머름을 들여 창턱을 높였는데 그 높이는 문의 굽널보다 한층 낮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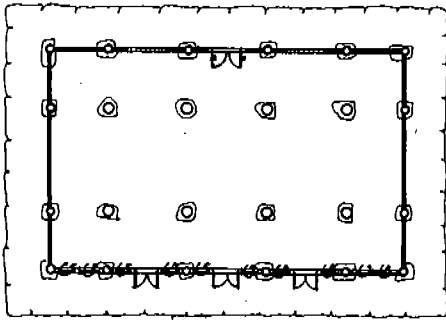
7) 김정기, 한국목조건축, 1982. 일지사. P 123

8) 신영훈은 한국의 미 (사원건축편 P218), 김봉렬은 한국의 건축 (공간사.1994 P 227) 에서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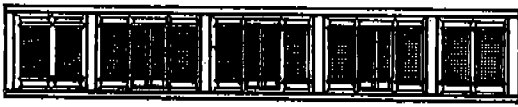
9) 어간에 신방목을 들인 판장문과 협간에 살창 또는 영쌍창을 단 형식으로 이는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조사당 그리고 봉정사 대웅전의 배면 창호등 비교적 오래된 건물의 특히 배면에서 많이 보이는 창호형식이다.

10) 현재와 같은 창호형식은 개수된 것으로 개변되기 이전의 모습이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아있고,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에 도면으로 남아있다.

11) 낙산사 원통보전은 6.25 전쟁당시 소실되고 현재의 건물은 후에 재건된 것이나 이전 건물의 모습이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아있다.



(도-3) 부석사 무량수전 평면도



(도-4) 부석사 무량수전 전면 창호형식

兩 退間에는 御間과 동일한 형식의 문얼굴을 들이고 가운데설주로 2등분하여 창을 시설하였는데, 上部와 下部에 같은 높이의 머름을 들이고 各間에는 상인방에 돌쩌귀를 달아 들어서는 井字살 들어열개 獨窓을 1개씩 설치하였다.

이들 창호의 전체형식을 개괄하면 출입이 필요한 柱間은 가운데 문을 설치하고 그 좌우에는 창을 시설한 반면, 그렇지 않은곳은 畵柱間을 창으로 구성하였다. 창과 문 그리고 창과 창은 가운데설주로 구분하였고, 창 상부와 하부에는 머름을 들어 창턱을 높이고 창 형식은 모두 들어열개로 하였다. 이러한 창호 형식은 畵柱間을 창과 창, 창과 문으로 구분하는 가운데설주가 있으므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後代에 오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들 가운데 설주가 없어지고 창호형식 또한 접어서 들어서는 분합들문이나 들창으로 형식이 바뀌어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수덕사 대웅전

1) 개요

수덕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에 있으며 신라시대 지명법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하고, 一說에는 백제 침류왕 2년(358)때 창건된 백석사 였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

람은 1937년의 해체수리 당시 화반의 하단과 철차하단에 기록된 목서명¹²⁾에 의하여 1308 (고려 충렬왕 34년)에 건립된 건물로 확인되었고 현재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은 正面 3間 側面 4間的 9梁架 겹처마 맞배지붕집으로 전형적인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내부의 공간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마찬가지로 內陣 高柱를 두어 外陣과 內陣으로 구분하여, 架構手法도 부석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꾸몄다.

건물의 정면 3간에는 창호를 달았는데 御間에는 출입할 수 있는 문과 창으로 조합 구성하였고, 양협간에는 3連獨窓을 설치 하였다. 반면 배면의 창호는 어간에만 쌍여닫이 띠장널 영쌍창이 남아 있는데 양협간에도 이와 동일한 창이 달려 있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또한 부석사와는 달리 양측면에는 佛殿에 출입할수 있는 외여닫이 굽널교살문이 각각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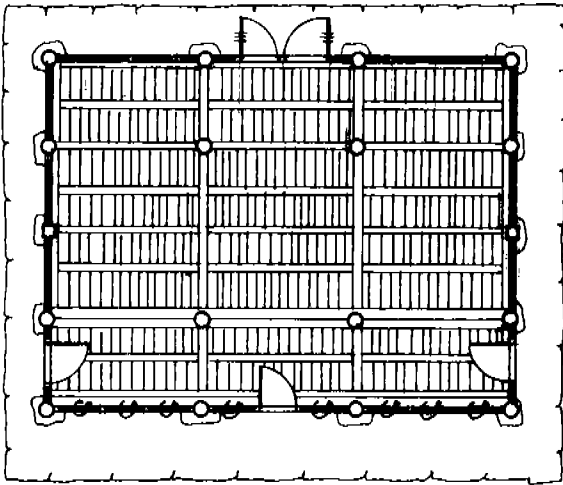
2) 전면 창호형식

수덕사 대웅전의 전면창호는 御間과 兩夾間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어간의 창호를 보면 柱間의 하인방과 상인방 사이에 문얼굴을 짜고 문과 창을 조합 하였는데, 간살을 정확히 3등분 하여 가운데설주로 경계를 짓고 가운데에는 외여닫이 굽널 교살문, 그 左右에는 들어열개 교살 獨窓을 각각 달았다. 좌우의 들어열개 독창의 하부에는 머름을 들어 창턱을 높였고 문과 창 상부에도 머름을 들였는데, 부석사 무량수전과 다른점은 문 상부의 머름과 창 상부의 머름 크기를 다르게 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과 문을 외여닫이로 하였다는 것이다.

兩 夾間에는 柱間을 가운데설주로 3등분하여 각각 들어열개 교살 獨窓을 설치하였는데 하부에는 창 폭과 같은 크기의 머름을 들어 창턱을 높이고 상부에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머름을 들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창호 형식을 가능토록 해주는 가운데 설주이다. 柱間의 전체에 창호를 들이게 될때 가운데설주를 세워서 여닫이문과 들어열개 독창으로 구성한 이러한 창

12) --至大元年戊申四月廿四日 修德寺造成就目抄記--

호형식에서 창과 문은 순수하게 제기능¹³⁾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운데설주가 사라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창하부의 머름이 사라지고 모든 창호의 높이가 같아지면서 접어서 드는 분합들문 혹은 분합문으로 바뀌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창호 형식은 분합들문이 생기기 이전의 한 형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5) 수덕사 대웅전 평면도



(도-6) 수덕사 대웅전 전면 창호형식

3. 관룡사 약사전

1) 개요

관룡사는 경남 창녕군 옥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약사전은 관룡사의 二次的 法堂이다. 약사전의 건립년대는 알수 없으나 두공의 모습등으로 보아 朝鮮初期에 건립된 건물임은 분명하다. 건물은 법당건물로는 희귀한 正面 1間 側面 1間的 규모가 매우 작은 5梁架 겹처마 맞배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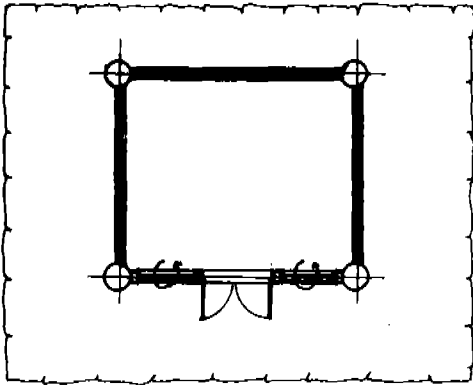
건물의 기둥에는 약한 배흘림이 있고 창방뿔목이 헛첨차가 되어 출목첨차를 받쳐주고 있으며, 두공은 네귀의 기둥위에만 架構되어 주심도리와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架構는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각 도리의 간격이 조밀하게 배치되고 대공위의 가구구성이 특이한데, 즉 대량끝이 받치는 주심도리의 안쪽에서 시작되어 큰 곡률로 휘어오른 우미량이 그대로 중보가 되고, 다시 중도리 안쪽에서 휘어오른 우미량이 宗梁이 되어 그 종량 중앙에 소로를 올려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에는 중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나 소슬합장이 없는 건물이다¹⁴⁾. 이 건물의 창호는 정면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정면을 구성하고 있는 문은 좌우로 한번 접어서 드는 4분합 들문의 형식을 하고 있다.

2) 전면 창호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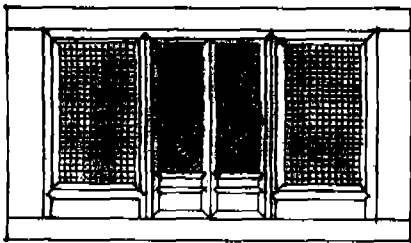
관룡사 약사전은 正面이 1間으로 구성되어 창호도 前面 杌柱間 1곳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창호는 굽널 井字살 4분합 들문이 시설되어 있는데, 193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약사전의 사진과 정인국의 한국건축 양식론(P 40)에는 改修되기 전의 창호형식이 남아있다. 여기에 수록된 모습을 보면, 杌柱間을 구성한 창호는 양쪽 기둥에 문설주를 붙여 세우고 상인방 밑에 문미를 두어 문골을 만든 다음 하인방을 문지방 삼아 창호를 달았는데, 문얼굴을 3등분 하여 가운데에는 출입문을 내고, 문 좌우에 獨窓을 설치 하였다. 문과 창의 사이에는 가운데설주를 세워 구분하고 창 하부에는 머름중방을 들어 창턱을 높였다. 문의 형식은 굽널을 들인 兩開 교살 문이고 창은 井字살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도면과 사진상으로는 창의 개폐방법을 알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형태의 창이 모두 들어열개로 된 獨窓이고 보면 약사전의 창 또한 들어열개가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

13) 후대로 내려오면은 창과 문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混用되는 경향이 있다.

14) 김정기. 한국건축사 개설 제47회. 건축문화 8807호. P 39



(도-7) 관룡사 약사전 평면도



(도-8) 관룡사 약사전 전면 창호형식

4. 낙산사 원통보전

1) 개요

낙산사는 新羅 文武王 11년 (671) 義湘大師가 창건하였고, 그 후 불탄것을 현강왕 2년 (858) 梵日祖師가 重創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兵火를 입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 들어와서 世朝 14年(1468) 禪僧 學悅이 중창 하였고 임란후 폐사지경에 이른것을 崇禎 辛未年 (1631) 僧 宗密이 중건 하였으나 다시 불타버려 癸未年 (1643) 僧 道源이 재차 중건 하였다. 그 후 光緒 17년(1891) 龍船殿, 靈山殿, 御製樓, 僧堂등이 燬락하여 僧 仙鶴이 중건 하였고, 그 후 乙未年 (1895) 僧堂을 光武 9年 (1905)에는 禪堂과 後閣을 재차 중건 하였다가 6.25사변때 京內의 모든 건물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의 건물은 1953년 4월 당시 1군 단장이던 李亨根 장군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¹⁵⁾

6.25때 소실된 舊 원통보전의 건축년대는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으나, 건축연혁에서 언급되고 있는 1631년 혹은 1643년의 再建時에 건립된 건물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진으로 본 원통보전의 모습에서도 어느정도 수공이 가는 사실들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집으로 外2出目, 內3出目으로 구성된 두공포작은 제공의 端部가 약간 휘어져 올라가 양서형으로 되고 內端部는 운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번잡한 장식없이 비교적 건실한 모양을 지니고 있어 朝鮮中期 건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⁶⁾

2)전면 창호형식

1932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낙산사 원통보전의 창호를 살펴보면, 前面 3칸의 각 칸에 상인방과 하인방 그리고 주선으로 문얼굴을 만들고 여기에 창호를 달았는데 御間과 兩夾間의 창호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중앙의 御間에는 가운데설주로 간살을 3등분하여 폭이 넓은 兩開門과 그 양쪽에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獨窓을 달았다. 문은 하부에 굽널을 들인 쌍여달이 굽널 井字살문이고 창은 설주와 주선 사이에 머름중방처럼 가로재를 보내어 턱을 높인 다음 외여달이로 보이는 독창을 달았다. 이러한 御間의 창문구성은 창과 문의 크기와 창문을 부재의 굽기 및 외곽 창문의 개폐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관룡사 약사전의 御間 창문 그리고 맹씨행단의 출입문과 동일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¹⁷⁾

兩夾間에는 左右 기둥에 붙여 세운 설주 사이에 머름중방을 설치하고 중앙에 굽은 가운데설주를 세웠다. 가운데설주의 좌우에는 각각 살창문을 두쌍씩 달았는데 양쪽 端部間의 살창의 짜임새가 각각 달라 後代에 개제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설주에 각각 둘러싸고 판단되는 돌출물이 부착되어 있어 가운데설주를 중심으로 좌우로 접어여는 창문이 아닌가 추측된다.¹⁸⁾ 이러한 창문의 구

15) 김일진, "한국건축의 영상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 157-158

16) 김일진, 前掲書 P 159

17) 김일진, 前掲書, 1988

18) 김일진, 前掲書, 1988

조는 한번 개변된 것으로 보이는 봉정사 대웅전 전면 양협간의 창호¹⁹⁾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술한 부석사, 수덕사 및 맹씨행단의 2連獨窓 및 3連獨窓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와같은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간살이 넓어진 夾間에 공을 들인 3連獨窓이나 2連獨窓을 달지않고 가운데 설주를 세우는 방식만이 남고 창문의 채광과 漸進의인 개구부의 확장, 개방등의 이유로 그 左右에 2분합문을 달아 나머지는 생략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것이다.



(사진-1) 낙산사 원통보전 정면의 옛모습
(조선고적도보 12, 1932년)

IV. 종합 고찰

맹씨행단 대청전면 창호와 같은 형식은 기능상 전혀 다른 건물인 사찰건축의 佛殿 전면에서도 보이고 있고, 비록 비교대상 건물이 小數에 불과해서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지역적인 분포도 여러곳에 걸쳐 있어서 지역과 기능에 관계없이 麗末鮮初에 이르러 많은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하나의 창호형식이 아니었던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한편 전술해서 살펴본 비교대상의 건물과 맹씨

행단의 창호는 많은점에 있어서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모든 대상건물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대청 전면의 夾間에 걸쳐서 살창을 달았고, 출입이 필요한곳과 그렇지 않고 창의 역할을 하는곳에는 각기 다른 양식으로 창호를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맹씨행단과 모든 비교 대상건물에 있어서 출입이 필요한곳의 창호형식을 문과 벽체로 간살을 구성치 않고 가운데에 외여단이 혹은 쌍여단이의 문을 달고 좌우에는 벽체 대신 獨窓을 설치하였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의 형식은 맹씨행단과 수덕사 대웅전에서 외여단이 문인데 반해 부석사 무량수전과 관룡사 약사전 그리고 낙산사 원통보전은 쌍여단이문을 달았다. 맹씨행단에서는 간살이 좁아 쌍여단이를 달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덕사의 경우는 左右夾間の 3連獨窓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意圖의으로 외여단이를 달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²⁰⁾

문의 좌우에 있는 독창의 형식은 낙산사의 원통보전의 여단이창을 제외한다면 모두 맹씨행단에서 볼 수 있는 들어열개 독창으로 구성 되었다. 원통보전의 御間門 좌우의 창이 들어열개가 아니라 여단이창으로 구성된 것은, 원통보전의 창건년대가 다른 비교대상의 건물보다 약간 후대임으로 들어열개 독창이 여단이창 혹은 분합창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낙산사 원통보전의 창형식을 후대로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협간의 창 형식이다. 兩夾間の 창은 가운데설주를 사이에 두고 각각 2分合창이 달려 있는 것으로 후대에 한번 改變된 봉정사 대웅전의 전면 창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독창형식이 후대로 오면서 분합문으로 점차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더욱 뒷바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문과 창을 구분하는 가운데설주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가운데의 문은 양쪽의 설주에 돌쩌귀를 박아대고 여단이로 한

19) 봉정사 대웅전의 兩夾間 창호는 좁은 가운데설주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짝의 접어여는 분합문이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도 원래의 창호는 아닌듯 창호의 상인방에 돌쩌귀 자국이 따로 나있어 후대에 改變된 창호임을 알 수가 있다.

20) 수덕사 御間 외여단이 문은 그 폭이 1.3m 정도로 통상 보이는 외여단이문 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쪽의 창은 문상인방에 들찌귀를 달아 들어 열개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후대로 오면서 언제부터인가 가운데설주가 사라지면서²¹⁾ 가운데의 문은 자연히 양쪽의 창에 잇대어 들찌귀로 달게 되었고 양쪽의 창조차도 문으로 바뀌면서 분합들문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과 창이 조합된 형식은 분합들문이 발생되기전 하나의 창호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맹씨행단의 右側間에서 볼 수 있는 창의 형식은 가운데설주를 사이에 두고 들어열개로 구성되어 있는 3連獨窓의 형식인데,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는 수덕사 대웅전 양협간의 창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兩邊間 창으로서 창상부와 하부의 머름 형식조차도 같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고찰의 건물중 관룡사 약사전이 정면 1間으로 간살 전체가 창으로 구성된 夾間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문의 좌우에 설치된 독창이 형식면에서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낙산사의 원통보전에서는 설주를 사이에 두고 각각 2분합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建立時期가 이들보다 약간 후대인 점을 감안 한다면, 가운데설주를 사이에 두고 각각 들어여는 독창의 형태는 이 시기에 유행하던 창의 구성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의 형식도 가운데설주가 사라지고 나면 가운데설주가 없이 창의 웃인방에 각각 들찌귀를 달고 들어여는 창²²⁾이나 혹은 접어드는 분합문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형식의 창호는 가운데설주가 하나 혹은 두개 세워진 창호틀에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틀의 형태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문얼굴에서는 이를 3

등분 하여 가운데설주를 세워 간살을 구분하고, 문의 양쪽에 창턱을 높여 창을 달았는데 맹씨행단에서는 가지방을 두어 높인 반면, 비교대상의 사찰건물에서는 모두 머름을 형성한 머름중방 위에 창을 올렸다. 그리고 문얼굴 상부의 머름은 비교적 건물의 높이가 낮아 상부에 여유가 없어 보이는 관룡사 약사전과 건립년대가 약간 후대인 것으로 보이는 낙산사 원통보전에서는 생략 되었고, 나머지는 창과 문의 상부에도 머름을 들어 하부와 동일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兩夾間의 2連 혹은 3連 獨窓의 창틀의 모습은 맹씨행단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에서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창틀을 가운데설주로 구분하고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모습의 머름을 들어 상하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창호틀을 구성하는 부재들 즉 머름중방과 머름동자 그리고 가운데설주는 모두 창호인방에 제비초려 맞춤으로 결구되어 있어 창을 만들때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살의 구성은 맹씨행단과 부석사 무량수전, 낙산사 원통보전에서는 창과 문 모두 井字살로 구성하였고, 수덕사는 교살로 창호살을 구성한 반면 관룡사 약사전은 문은 교살문으로 하고 창은 井字살로 꾸몄다. 단지 낙산사 원통보전에서 右夾間 2개의 2분합 창중에 유독 우측에 달린 2분합 창만이 띠살문 형식을 하고 있어 후대에 개편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창호중 마루전면에 시설되는 창호는 거의 대부분이 교살 혹은 정자살로 꾸며졌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맹씨행단 대청 전면 창호를 중심으로 하여 동일한 모양의 창호를 가진 몇몇 건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고찰 하였다. 孟氏杏壇은 조선 世宗朝때 재상 孟思誠이 살았고 국내의 살림집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차례의 改築을 거치면서도 창건시의 가구수법이 비교적 건실하게 남아있어 창건년대를 고려할까지 올려다볼 수 있는 建築史的으로 귀중한 사료이다.

21) 가운데설주가 언제부터 사라지게 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김일진은 그의 논문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8세기 걸쳐서 가운데설주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22) 한쪽씩 들어여는 문은 평상시 출입할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柱間을 개방할때에 비로소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의 형태가 굽넛을 들인 문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문이 아니라 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되어 공통적으로 도출된 창호형식은 麗末鮮初에 널리 쓰이던 보편적인 하나의 창호형식이라 생각되고 이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맹씨행단 대청전면의 창호형식이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걸쳐서 건립된 사찰건물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고, 대상건물의 소재지가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음을 볼때 맹씨행단 대청전면에서 볼 수 있는 창호유형은 기능과 지역적인 차이를 떠나 高麗末 혹은 朝鮮初期에 유행하던 하나의 창호형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창호의 형식을 살펴보면 창은 마루 前面의 竝柱間에 걸쳐 시설되는데 출입문과 창의 구성을 각기 달리 하였다.

출입문은 가운데설주를 세워 간살을 3등분하고 여기에 문과 창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는데, 가운데에 급널을 들인 외여단이 혹은 쌍여단이 문을 들이고 그 左右에는 가지방이나 머름중방으로 창턱을 높인 다음 들어열개 獨窓을 달아 각 각 좌우 대칭으로 꾸몄다.

세째, 창틀의 구성은 틀의 상하부에 동일하게 머름을 들여 창턱을 높이고 상하대칭으로 꾸며 창을 달았는데, 문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설주로 간살을 2등분 또는 3등분하고 상인방에 들쭈꾸리를 달아 들어여는 독창을 시설 하였다.

네째, 창과 문의 살짜임새는 모두 井字살이나 교살로 처리되어 있으며, 문틀 내부의 머름동자나 가운데설주는 모두 인방에 제비초리 맞춤으로 결구되어 창호를 만들 당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창호형식은 竝柱間을 창과 창, 창과 문으로 구분하는 가운데설주가 있으므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후대에 오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운데설주가 사라지면서 출입문은 불가피하게 창하부의 머름이 사라지고 창과 문의 높이가 같아져서 급기야는 접어서 들어여는 분합들문 혹은 분합문으로 바뀌게 된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2連獨窓 및 3連獨窓도 가운데설주가 사라지면 설주없는 들어열개 獨窓 혹은 分合窓으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창호

는 낙산사 원통보전의 兩夾間에서 볼 수 있는 2分合窓이 그 예인데, 넓어진 간살에 공을 들인 3連 혹은 2連獨窓을 달지 않고 설주를 생략하거나, 창문의 채광과 漸進의인 개구부의 확장, 개방 등의 이유로 창호의 형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前述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창의 형식 즉 간살을 창과 문으로 조합하거나 설주를 든 들어열개 獨窓으로 구성된 창호형식은 분합문이 생기기 이전의 한 형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VI.참 고 문 헌

1. 김정기,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1980
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80
3. 주남철, 한국건축미, 일지사, 1983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4. (한국건축사전),보성문화사,1985
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5, (목조), 보성문화사, 1988
6.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12), 대종교예사, 1932
7. 중앙일보사, 한국의미 13 (사원건축), 삼성인쇄, 1990
8. 한국문화재대계, 국보 17.18, 예경산업사,1986
9. 김일진 한국건축 영쌍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